

이나현

이메일: ina9377@gmail.com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조직과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주는 개발자를 지향합니다.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고자 하자센터 등 청소년 센터에서의 재능 기부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속된 팀과 커뮤니티 내에서 문제 해결과 구조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경력 사항

2022. 11 – 2026.03 (3년 5개월)

[포씨게이트](#) 플랫폼사업부 웹&앱 개발 / 운영

[주요업무] Swift, Kotlin, React-Native, Java, Spring Boot, JSP, FreeMarker, JavaScript, jQuery, React, Next, Nest, Express, Linux 등 다양한 기술 스택을 활용하여 풀스택 인력으로서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 업무 환경 및 시스템 명세 문서화를 통해 개발·운영 관리 체계 구축
- 기존 iOS, Android 앱(네이티브·하이브리드) 출시 관리 및 서비스 이슈 대응
- 신규 알림톡 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담당하여 회원 인증 및 예약 관리 등의 기능 구현
- 수납·제증명 기능을 위한 PG 및 본인인증 연동(이니시스, 넥스원, KCP, KPN, KIS, NICE, 엑심베이, 카카오페이 등)

학력 및 교육사항

- 2026.04 - 2026.11(진행중) *2026.11.02 수료 예정*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 국방 데이터 분석 과정(한화에어로스페이스)
- 2026.02 - (진행중)
 - [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 첨단공학부 재학 중
- 2021.12 - 2022.05
 - [휴먼교육센터] Java 프로그래밍 기반 웹 개발 교육 과정 이수
- 2018.09 - 2020.02
 - [독학학위제] 심리학과 학사 졸업 (국가 인정 4년제 학사)
- 2010.09 - 2011.06
 - [Embassy CES London] 영국 어학연수

웹 페이지 & 포트폴리오

- portfolio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7CO8yFDXfaafT_CH4RhOF2v3UHIrcTc
- Blog <https://h-owo-ld.tistory.com/>

- GitHub <https://github.com/lna-dang>
 -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inadang77>
-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및 직무 전환 동기]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던 저의 시간이 지금의 직무 결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레 귀농하신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광주와 담양을 오가는 학창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며 근접한 지역이지만 학교별 교육방식의 차이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담양에서의 학창 생활은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있었고,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며 꾸준히 영미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특성상 다문화 가족이 많은 환경 덕분에 편견 없이 개개인의 문화와 개성을 자연스레 습득하고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광주로 실용음악 학원을 통학하며 꾸준히 음악을 해왔지만 2018년 말, 작곡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해 오던 꿈. 그 외 다른 대안 없이 작곡가만 바라보았던 저에게 취업이라는 글자 자체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되기 전에 먼저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한 후 2020년 2월, 저는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목표를 달성한 후 취업을 다시 준비하며 여러 직무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HR, 상담 등의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토대로 경험한 직무들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직무만족도에서의 불일치를 겪고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작곡을 할 때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했었기에 겁 없이 시작했으나 낯선 용어들로 가득 찬 자바를 보며 처음엔 수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수료했고, 수료 후에는 프론트엔드 직무에 더 집중하여 개발자로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낯선 변화 앞에서 한 걸음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 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신규 직업이 나오면 무조건 키워보고, 음악을 들을 때도 최신 음악을 꼭 확인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발견하여 배울 점을 찾는 걸 즐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걸 찾아낼 때의 단순한 쾌감보다는 그것이 '왜' 새롭게 느껴지는지 과거-현재를 비교하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관심사가 가볍게 바뀐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에 저는 한 번 시작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그만두기 전,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기 위해 가고 싶었던 회사에 직접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고 싶은 소속사가 있던 영국, 일본 등에 직접 데모 CD를 돌리러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되었고, 회사와의 계약은 없었지만 들어가고 싶었던 모든 회사에 직접 PR하며 작곡가로서의 미련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책임감을 느끼고 미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노력]

<언제나 아이디어를 찾고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 성장해 낼 것입니다!>

전 게임을 좋아합니다. 규칙을 찾고, 여러 시도 끝에 결국 풀어 냈을 때의 그 성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취감을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에도 느꼈습니다. 막막하다가도 마침내 원하던 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짜릿한 느낌을 느꼈고, 교육을 들으며 여러 기술을 배울수록 점점 개발 직무가 제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입사'라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사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개인 학습 시간을 늘려 직무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직무의 담당자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프런트엔드 지식뿐 아닌 다양한 지식을 채우려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역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배운 지식과 경험을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며 기본기 및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AI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겠다는 주의를 느끼게 되어 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 AI전공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점층적으로 쌓아올린 저의 기술을 활용해 '하자센터' 같은 곳에서 개발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기에 더욱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전, 팀의 발전,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